

“성장→물가잡기” ... ‘MB노믹스’ 제도수정

이 대통령 4개국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서 밝혀

대외여건 악화 ‘저성장-고물가’ 전략 우려

술술 불던 금리인하론도 다시 수면아래로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4개국 경제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 물가 잡기 우선의 배경 = 이 대통령이 “이전에는 7%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며 성장 주도의 정책기조를

물가 잡기 우선의 배경 = 이 대통령이 “이전에는 7%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며 성장 주도의 정책기조를

를 물가로 옮긴 것은 그만큼 대외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텝스가 몰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도입 유종인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꾸준히 올라 우리 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됐다.

실제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3% 급등했다. 이는 199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원재료 물가는 2개월 연속 45% 급등했으며 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지지도 하락 우려 때문에 서민경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금리 인하론에 썩기 =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최근 불거져 나오는 금리 인하 주장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운영 방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성장 우선이나, 물가안정이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올해 6% 성장에 몸이 단 기획재정부가 금리인하를 내심 기대하면서 이던 저런 경로로 한국은행에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나 물가안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실효 내릴 경우 물가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형국이었다.

특히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지지도 하락 우려 때문에 서민경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금리 인하론에 썩기 =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최근 불거져 나오는 금리 인하 주장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운영 방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성장 우선이나, 물가안정이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올해 6% 성장에 몸이 단 기획재정부가 금리인하를 내심 기대하면서 이던 저런 경로로 한국은행에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나 물가안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실효 내릴 경우 물가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형국이었다.

특히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고성장이 지상과제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선택에서 다소 유연해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성장정책을 계속 뒤로 미룰수록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단 물가가 급하니까 당분간 이를 우선 시하라는 것이지, 올해 저성장을 해도 좋다는 발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지금 물가와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들중 하나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둘다 놓칠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봄기운?

미국 투자은행 실적 예상치 상회

코스피 닷새째 강세 ... 1,600 회복

미국발 신용경색 한파로 잔뜩 움츠러있던 주식시장에 봄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했던 원자재값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경제지표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신용경색 위기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본격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스피지수는 24일 지난 주말 대비 9.61포인트(0.58%) 오른 1,655.30으로 마감,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7일 기록한 장중 저점인 1,537.53에 비해 무려 117.77포인트(7.66%)나 치솟았다.

코스닥지수도 이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3.67포인트(0.60%) 상승한 619.60으로 마감했다.

올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들이 최근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것도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날 발표한 ‘2·4분기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방어적인 전략에서도 벗어나 과감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코스피지수 변동 범위로 1,620~2,000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환율 이틀 연속 급락 ... 9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1,0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5.90원 급락한 997.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2거래일간 12.80원 급락하면서 지난 14일 이후 6거래일만에 900원대로 밀려났다.

국민 65% “성장 5%면 만족”

무리한 경제운영보다 현실 감안 정책 펼쳐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의 65.5%는 우리 경제가 5%대 정도로 성장하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새 정부가 7·4·7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뒤 7대 강국)을 무리하게 이루려 애쓰기 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경제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새정부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수용도’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5~14일 일반국민 576명과 기업인, 교수,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9명을 상대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새 정부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해 ‘이 정도면 된다’하는 마음속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 7% 성장 공약과 관련, 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은 11.8%, 전문가가는 6.5%에 불과했다. 일반국민의 65.5%, 전문가의 69.5%

는 수용가능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수치를 4.0~5.5%대로 응답해 우리 경제가 5%대 정도 성장하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국민소득 10년내 4만달러 이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은 13.4%, 전문가는 11.9%에 불과했으며, 7대 강국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1%에 그쳤다.

반면 일자리수 60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9.4%와 전문가의 10.1%가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공약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5.9%와 전문가의 50.5%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은 28.2% 전문가가는 47.7%에 달했다.



미백 비타민 수지침

24일 서울 테헤란시장 명동 매장에서 열린 ‘하이트 크리스탈 퓨어 비타 프로그램’ 출시 기념이벤트에서 고객들이 미백 비타민 수지침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 물가관리 적극 나서야 가격·환율 개입엔 부작용도”

KDI 원장·삼성경제연구원 소장 등 ‘경제불안 해법’ 시각차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이 최근 국가와 환율 상승, 물가 급등 등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구원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11개 국책, 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4일 낮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경제전망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정부가 서민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이나 공급예보를 풀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며, 대외신뢰도와 관계없는 경수수지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를 확장해서는 안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단기적으로 경기조정 정책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경제가 나빠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자연스런 경기의 순환을 물리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가격이나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의 문제에 현혹돼 경기부양에 나서기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서비스산업경쟁력 향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물가상승에 긴급 할당관세를 내린다든지, 매점매석을 못하게 공급을 늘리고 탄합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시장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격통제나 경기부양 등 경제흐름에 거스르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구원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원자재가과 유가가 무기나 수급문제, 달러화 약세로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자금회수에 나섰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잦아들 것이고, 세계 경기둔화로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근 원.원.위안 환율이 급등해 수출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원자재가나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유럽서도 中에 밀린다

작년 對 EU수출 한국 560억달러·중국 2,452억달러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 떠올랐지만 고소득 선진국인 서유럽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등을 무기로 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4일 ‘EU시장내 한·중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2007년 한국의 대(對)EU 수출이 249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2.3배 늘어나는 동안 중국은 410억 달러에서 2천452억 달러로 6배 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대EU 수출이 대미, 대일 수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EU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며 ‘원조’ EU인 서유럽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각각 8위와 22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2007년에는 각각 10위와 27위로 밀려났으며 서유럽 15개국 시장만 따져보면 한국의 수출은 이 기간 1.9배 늘어난 데 비해 중국의 수출은 5.8배로 늘어났다.

납품가연동제 도입 미뤄지나

지경부, 제도화 앞서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강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가 법제화되거나 반강제화될 경우 정부가 가격책정에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

날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재료가격인상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격히 단가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표준계약서 방식은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업종마다 계약을 맺으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표적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전자서비스·GCA광주캠퍼스	삼성전자서비스 Anycall 전문상담사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971-4640
㈜광일기공	총무사원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26	062-954-1725
㈜진원상사	기술영업(실사)기 A/S 및 영업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7	062-373-7405
신성하이텍	경리/회계 경력직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3/27	062-952-1441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 웨딩클럽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7	062-223-0805
㈜엘오이국어학원	상담 사무관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28	062-226-0515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삼남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28	062-601-7213	
미래에셋생명-본사	[고액승인회원]제테크상담-변액,펀드분배(남/여)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3/31	02-2201-5205
유승프렌드	[전남여수]경력직 현장소장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31	061-686-3051
㈜웰츠기전	전기설계사	고졸/경력1년	2000~2200	03/31	062-956-2933
설총산업	간판디자이너(안전표지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512-7088
(유)세기건설	토목기술자(토목산업기사 이상)	초대졸/경력2년	2400~2600	03/31	061-278-0982
㈜아시아드	[영성제작직] 직가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3/31	062-602-2334
㈜한맥캐미칼	플라스틱射出 제조/가공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31	061-393-814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 지난해 1인 평균 8,734만원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숨진 사람에게 1인당 평균 8천734만원, 다친 사람에게 191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작년 한해 동안 보험금이 지급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망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21~30세가 1인당 평균 1억5천274만원의 보험금을 가장 많았고 61세 이상이 5천36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상 경제 활동을 갖 시작하는 21~30세를 정점으로 더 어리거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은 줄었다.